

여름은 동사의 계절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백운동전시관장

‘여름은 동사의 계절, 뽕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가 올여름 광화문 교보생명 외벽에 걸리는 현판 글귀로 선정되어 게시되었다. 이재무 시인의 ‘나는 여름이 좋다’에서 가져왔다.

여름은 덥고 지치는 계절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시간으로 바라보고 각자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펼쳐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

문안 선정은 시인, 소설가, 카피라이터,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 글판 선정위원회’와 시민 참여를 통해 다가올 계절과 사회상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필자도 선정위원회에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 많을 때는 2000편 정도 접수될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선정된 문안은 전국 교보생명 빌딩에 걸리는데 광주 금남로 사옥에서도 볼 수 있다. 35년간 120여 편의 문안이 선정, 게시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힘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구는 나태주 시인의 ‘꽃꽃’ 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힘이 되어 준 광화문 글판 명문들을 더 소개한다.

정호승 시인의 ‘풍경 달다’ 중 “먼 데서 바람 불어와 / 풍경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찾아간 줄 알아라.”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중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성진 ‘벌레 먹은 나뭇잎’ 중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정희성 시인의 ‘숲’ 중 “제가꿈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도중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김경인 시인의 ‘여름의 할 일’ 중 “올여름의 할 일은 /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만’ 중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짓지만/햇살과 바람은/한쪽 편만 들지 않아.”

아!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격려가 되는 언어들인가? 주옥같은 문구들이 어느 순간 가슴에 와닿아 불가에서 말하는 화두처럼 길이 되고 지혜가 되어 준다.

윗글에서 소개한 시인 중 몇 분이 백운동 시를 쓰셨는데 백운동 원림을 경영하는 필자에게 힘을 솟구치게 해준다.

정현종 시인의 ‘마음의 과잉을 어쩔 줄 모르겠네!’ 중 “누가 숨겨 놓았는지/ 백운동 별서정원./ 필경 월출산이 숨겨 놓았으며/하늘도 합심해서/비밀을 지키고 계시니/쉬밭살하기 어렵네./저 불멸의 숲 오정들을/여기서 만나니/숲이야 계곡이야/꿈의 도가니/내 마음 오래 전부터/ 여기 있었네./우리 꿈, 세상 이래 여기 깊어 있었네./꿈도 마음도/여기 참 많이 봄벼/이 과잉을 어쩔 줄 모르겠네.”

도중환 시인의 ‘산다음’ 중 “모멸의 시간을/담대하게 지나는 그대여/삶의 곳곳은/남떠러지거나/벼랑을 만나 더욱 수려해진/월출산 옥판봉 같은 산도 있으니/바위틈에서도 우뚝하게 살고 있는/팽나무 같은 나무도 있으니/상처 많은 그대여/길이 보이지 않아도 동백은 피고/길이 없어져도 별은 반짝이리니/산다화

처럼 피어서/이 세월을 견디시게/나는 유거에서/그대는 초당에서.”

시인들의 언어는 아름답고 가치 있다. 방문객들에게 넉넉히 길을 귀뜸해주고 마음의 그늘도 되어 준다.

요사이 품위도, 사랑도, 위트도, 풍류도, 영감도 없는 더럽고 시끄럽고 험악한 언어들이 시중에 넘쳐나 걱정스럽다. 몇몇 지도층 인사들의 언어는 국민을 너무도 부끄럽게 하고 자질을 의심케 했다. 시간, 감정, 돈을 쏟아부어 뱉어내고 만든 거짓과 증오의 언어가 난무한다. 이를 공유하는 한통속거리 연대와 유대는 단단히 결속되어 갈등과 불신은 커지고 풍속은 너무나 사나워지고 폭동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쓰는 언어는 놀랍게도 유사하다. 마치 종교의 ‘말씀’이나 ‘음성’처럼 예배하고 이행한다. 이스라엘이나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도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언어가 폭동, 혁명, 전쟁의 명분과 연료가 된 역사는 많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언어가 갈수록 천하고 나절해져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병리의 근원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 사람들이 시작 언어를 쓰고 순진한 감성이 쑥삭 자랐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말과 글, 뜻을 전하는 광화문 글판의 경우들은 생각 깊은 사람들에게는 호수에 던진 조약돌처럼 평화로운 파문을 일으킨다. 그리고 필시 세상에 긍정의 동사가 되어 파동을 줄 것이다. 나의 올여름 동사는 무엇일까? 뻔지 못한 것은 단혀서 일 것이고, 흐르지 못한 것은 막았기 때문일 것이고, 자라지 못한 것은 벽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솟구치지 못한 것은 움크렸기 때문일 것이다.

장마와 불볕더위를 견디고 달라진 세상을 살아야 할 올여름, 나와 가족, 친구, 이웃, 국가가 뽕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아야 할 것이 무언인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社說

신속히 추진돼야 할 호남고속도로 확장

‘지역숙원’ 위해 정부가 나서야

광주광역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열린 시민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찬성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이다. 총사업비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미 2조원을 넘는 광주시의 부채 상황에서 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19명 중 16명이 ‘공사 시작’을 요구했다. 교통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강하다. 광주시가 제시한 10년 분납과 무이자 방식은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비 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풀어줄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광주시와 정부, 국회는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단순한 교통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는. 광주와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강기정 시장이 말한 대로, 사업이 시작되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소음·분진 문제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과 시민들이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숙원 해결을 위한 광주시의 결단을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는 광주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예측 필요한 ‘신가동 중학교’ 신설

무책임한 신설은 모두의 손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광산구 신가동에 중학교 신설을 놓고 지역주민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현실적 선택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광주의 집단지성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내놓을 때다.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는 노후된 신가동 일대를 재개발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6년 조합과 시교육청 협의를 거쳐 기존 신가초를 재배치 하고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 일정 등이 2029년으로 늦춰지면서 중학교 설립에 차질이 빚어졌다. 2020년 같은 학군 내에 25 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개교한 데다 동일 학군 내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가 2026년 2351명에서 10년 후 708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도 중학교 신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개발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은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뤄진 후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진다. 시교육청이 ‘학군 내에 중학교 11곳, 초등학교 19곳이 있어 중학교 여유 교실만 30~100실에 달하고 신가동 정비구역 인근에 도보로 20분 이내 중학교가 3곳이나 돼 분산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예측 없이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예산 낭비와 함께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 증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주민을 설득시켜야 한다. 정확한 예측 없이 더 나은 교육여건 등을 위한다며 주먹구구식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 전체의 손실이다. 다양한 문화·체육·교육시설 등을 하나의 학교에 집약하는 복합화도 고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무책임한 신설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추구한다.

서석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을 찾아 첫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지역의 전략과 비전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현장을 찾은 지자체장들의 대답은 선명하지 않았다. “산단만 짓고 있다”,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요약하는 말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AI 데이터센터 유치, RE100 기반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대체 스마트산단 추진 등 나름의 정책 방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 방향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성과 설득력이 따라붙지 않았다.

타운홀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왜 그 전략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물었다면, 지역은 그에 맞는 답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했다. 말할 기회는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고대 아테네의 한 재판 장면이 떠올랐다. 고대 아테네에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권력자들에게

게 정이란 무엇인지, 좋은 통치란 어떤 것인지 물을었다. 그러나 이들은 답하지 못했고, 유죄를 선고받은 그는 독배를 들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 흔히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불리지만, 진짜 죽은 것은 질문에 답하지 못한 아테네의 정치였다.

이번 타운홀도 그랬다. 질문도 있었고, 답할 기회도 있었으나 광주와 전남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추후에 한다는 사업은 줄줄이었지만, 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은 보이지 않았다. 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정부가 왜 지금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했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지금, 지역은 더 많은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 결국 지역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가 주는 기회도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은 결국 지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진일보 @jni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bo.com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bo.com m.jni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bo.com